

보도시점 2026. 10. 13.(화) 12:00 (수요일 조간) 배포 2026. 10. 12.(월)

화학사고 발생 시 ‘주민대피·수습복구’ 최우선... 지방정부 대응역량 높인다

- 화학물질안전원·천안시, 화학사고 대응 도상훈련 공동 실시
- 지방정부 재난대응 실무반 역할 점검, 사업장·주민대표도 참관

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(원장 박봉균)은 천안시와 공동으로 10월 14일 오후 천안시청(천안시 서북구 소재)에서 주민대피와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‘화학사고 대응 도상훈련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훈련에는 화학물질안전원과 천안시를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, 충청남도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며, 사업장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천안시 지역협의체 약 50명도 참관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화학사고 대비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.

훈련 진행 방식은 화학물질 이상반응 사고를 대비하여,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증기누출과 화재·폭발이 발생하고 소방용수 유출로 수질 오염까지 확대되는 복합재난을 가정해 진행한다.

훈련 참여자들은 △사고 상황 전파, △초동대응, △재난문자 발송, △주민 대피, △대피장소 운영, △소방용수 수계 유입 차단, △폐기물 처리, △피해자 지원 등 사고 발생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임무를 수행한다.

이를 통해 신속한 초동대응과 기관·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, 실질적인 주민대피·보호 조치를 집중적으로 훈련할 계획이다.

아울러,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훈련 결과를 반영해 ‘주민대피·수습복구 중점 화학사고 표준훈련 시나리오’를 마련하여,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할 계획이다.

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“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현장대응부터 주민대피, 수습복구까지 여러 기관이 맞물려 움직여야 한다”라며, “이번 훈련을 계기로 각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, 지역주민·사업장과 함께 화학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화학사고 대응 도상훈련 개요. 끝.

담당 부서	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박춘화	(043-830-4110)
		담당자	연구관	박종은	(043-830-4154)
			연구사	한은지	(043-830-4167)
	천안시 농업환경국 환경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수진	(041-521-2330)
		담당자	주무관	방민기	(041-521-5437)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(배경) 화학사고 시 인명·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, 재난안전대책본부·현장통합지원본부 각 부서 임무숙지 및 현장작동성을 위한 훈련필요
- (목적) 실제 상황을 가정한 재난관리체계 가동 및 주민대피·수습복구 훈련을 통해 지방정부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강화

□ 도상훈련 개요

- (일 시) '26. 10. 14.(수) 15:00~16:30
- (장 소) 천안시청 3층 대회의실(충남 천안시 서북구 변영로 156)
- (훈련기관) 안전원·천안시^{주관}, 금강유역환경청, 충청남도 등 9개 기관(50여 명)
※ 천안시 지역협의체(1~4권역, 사업장·주민대표 등으로 구성) 약 50명 참관
- (훈련유형)
 - 화학물질 누출에 의한 화재·폭발 및 수질오염사고 등 복합재난
- (훈련내용)
 - 사업장 내 스티렌모노머 잔사유 저장탱크에서 중합이상반응으로 인한 화학물질 누출 및 화재·폭발로 2차 수질오염사고까지 확대
 -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·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및 현장작동성 점검
 - 주민대피(재난문자발송, 대피명령, 대피소운영 등) 및 수습복구(수질오염예방, 폐기물처리, 피해자지원 등) 중점 도상훈련

□ 진행순서

시 간		내 용	비 고
15:00~15:05	5'	개회 및 참석자 소개	천안시 수질환경팀장
15:05~15:10	5'	인사 말씀	천안시 부시장
15:10~16:20	70'	화학사고 대응 도상훈련	사회 : 화학물질안전원 총괄과
16:20~16:25	5'	훈련소감(안전원) 및 마무리 말씀(천안시)	-
16:25~16:30	5'	기념촬영	참석자 전원
16:30~	-	종료	-